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김양호
				연구원	성 명	김신희
출장기간	2012. 6.11-18(6박8일)		출장지	독일 뒤셀도르프, 빌레펠트		
출장목적	유럽에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이익 및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에 모색되고 있는 바, 특히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는 여성고용정책과 녹색성장을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동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특히 여학생들에게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직업분야의 직업 소개와 교육 및 훈련,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정책적 시사를 얻고자 함.					
경비부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8,000,000 원 소요)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방문지		면담자		내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환경부 방문		Johannes Rimmel, Ingrid Köth-Jahr		- 아이펠(Eifel)국립공원의'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프로젝트 관련 행사 소개 - 프로젝트 담당자 면담 “독일의 여학생과 여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보고서 소개		
뒤셀도르프 대학 양성평등위원회 방문		Monica Demming-Pälmer Klaudia Köhn		- 뒤셀도르프 대학의 SelmaMeyer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센터 견학		Birgit Kampmann		- 모든 직업분야에서의 기회균등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 소개		
OWL에너지 임펄스 견학		Klaus Meyer Beate Rennen-Allhoff		- 에너지 산업 관련 직업 취득 동기부여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개		
빌레벨트 여학생 협회 방문		Dr. Ulrike Graff		- 'Girl's Day'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워크샵,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별첨 1> 해외출장 보고서

<별첨 2>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여성정책

2012. 7. 1.

출 장 복 명 자 : 김양호 연구위원
김신희 연구원

<별첨 1>

해외출장 보고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뒤셀도르프, 빌레펠트)
여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사업 현황 조사

2012. 7.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친화정책전략단

- 차 례 -

I. 출장 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2. 출장국 및 기간, 출장자
3. 방문지 개관

II. 방문 기관별 주요 내용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방문 내용
2. 뒤셀도르프 대학 양성평등위원회 방문 내용
3.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센터 방문 내용
4. OWL 에너지 임펄스 방문 내용
5. 빌레펠트 여학생 협회 방문 내용

III. 출장 결과 활용

I.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 본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에서는 녹색성장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국정현안 운영에의 여성통합 전략을 모색해 온 바 2010년부터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여성실천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10년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은 '녹색성장 국민의식 및 생활조사'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녹색성장 의식 및 녹색생활 실천수준, 녹색성장 정책 평가 및 선호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

- 2011년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은 녹색생활 실천을 가정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자원을 공유하여 녹색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여성·가족센터 녹색경영 가이드 개발, 녹색 환경 모니터일단 양성교육, 녹색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등을 개최함.

- 2012년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은 지역사회 녹색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 사업으로 여성그린네트워크 포럼, 여성의 녹색 일자리 해외선진사례 연수, 녹색거버넌스 커뮤니티 활동사업 등을 계획함.

○ 유럽에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이익 및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에 모색되고 있는 바, 특히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는 여성고용정책과 녹색성장을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특히 여학생들에게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직업분야의 직업 소개와 교육 및 훈련,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정책적 시사를 얻고자 함.

2. 출장국 및 기간, 출장자

○ 출장자: 김양호 연구위원, 김신희 연구원

○ 방문 국가, 도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뒤셀도르프, 빌레펠트

○ 관련사업명: 여성친화정책전략단

지역사회 녹색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
사업 중 - 여성의 녹색일자리 해외선진사례 연수

○ 출장 기간: 2012. 6. 11(월) - 6월 18일(월)

3. 방문지 개관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MUNLV)¹⁾

- 위치 : 독일 북서쪽
- 행정구분 : 31군(Kreise), 23 자치시(kreisfreie Stadte)
- 행정관청소재지/ 수도 : 뒤셀도르프
- 인구: 약 1,803만명(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 석탄이 풍부하여 경제와 공업의 중심지로서 중산층 중심의 노동자 계층이 많으며, 1966 ~2005년 까지 사회민주당, 2005년부터 기독교 민주 연합(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이, 2010년 7월에 사회민주당이 녹색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다시 정권을 잡음

1) 1)MUNLV는 Ministerium fuer Umwelt und Naturschutz,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의 약자

○ 뒤셀도르프 대학 양성평등위원회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Büro der Gleichstellungsbeauftragten)

- 2006년부터 양성평등 위원회 추진을 통해 가정친화적인 대학의 인사 제도 및 지원프로그램, 여성후학들의 직업전문 분야에서의 커리어 양성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 센터

(Kompetenzzentrum Technik-Diversity-Chancengleichheit e.V.)

- 기술-다양성-기회 균등을 위한 우수 센터의 주요 목표는 정보 지식 중심 사회로 지향하기 위하여 또한 기회 균등의 부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OWL 에너지임펄스(Energieimpulse OWL)

- 지역의 독일 엔지니어 협회(VDI)를 비롯하여 대학, 기관, 학교, 기업과 학술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매년 40개 이상의 전문가 후진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이행, OWL에너지 임펄스는 연방 정부의 환경부의 위임으로, 좀 더 많은 여학생들의 에너지 기술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에너지-재생에너지를 위한 여학생"이라는 프로젝트 고안함.

○ 빌레펠트 여학생 협회 (Der Mädchentreff Bielefeld 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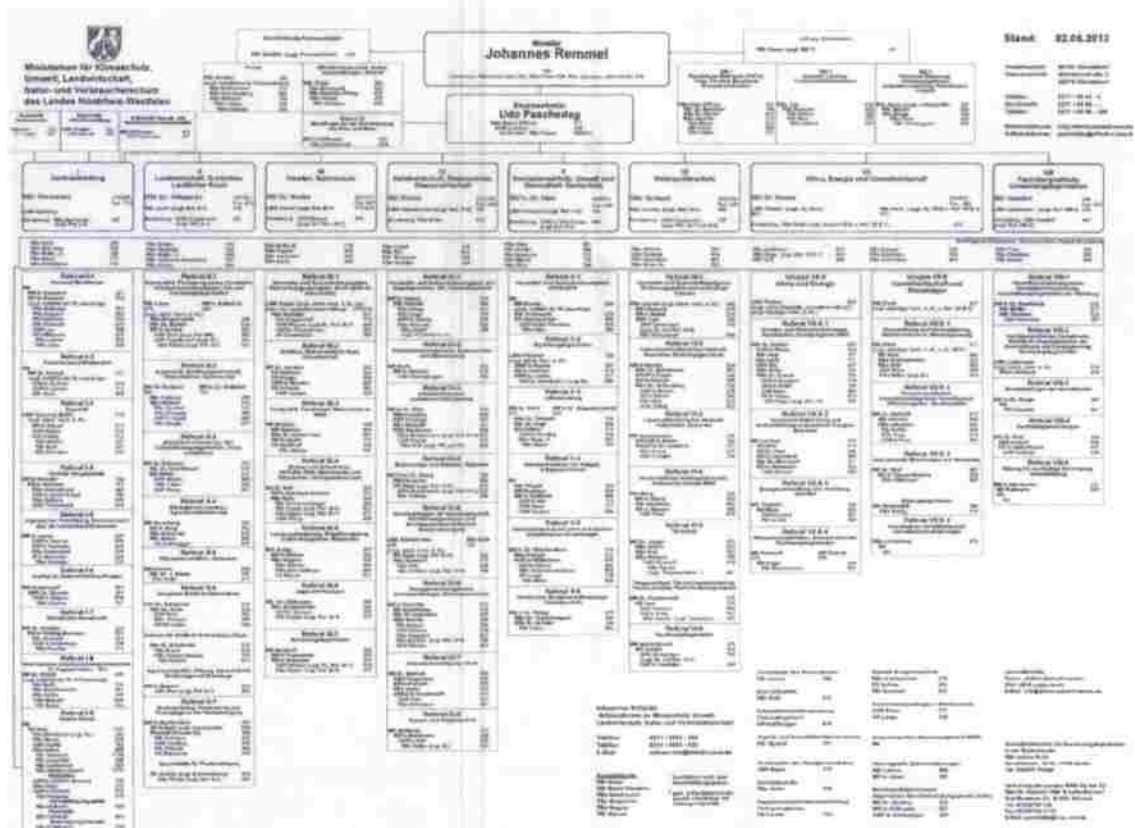
- 빌레펠트 여학생 협회는 실업 소녀 지원을 위한 협회로, 독일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청소년 무료 복지를 추진하는 단체임. 본 협회는 공동 복지 협회인, 빌레펠트 청소년 협의회(등록된 협회)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소녀노동 지원 지역 협력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회칙의 구현을 위해 1985년 이래로 여학생들의 여가, 문화와 자기계발 교육을 위한 빌레펠트 여학생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빌레펠트 여학생 모임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열린 최초의 여학생 모임임.

II. 방문 기관별 주요 내용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MUNLV) 방문 내용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MUNLV)의 양성평등 본부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는 부처 내에 양성평등 본부 AGG(Alle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가 있으며, 이는 조직 내의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인터뷰를 한 양성평등 본부 담당자 Ingrid Koeth-Jahr는 환경분야 생물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 "Girls' Day"를 비롯하여 그 외 성주류화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음.



<그림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레주 환경부(MUNLV) 조직도



<그림 2>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MUNLV) 방문 및 인터뷰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기후 · 환경 · 농업 · 자연 및 소비자 보호부 (MUNLV)의 성 주류화

- 2003년 9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기후 · 환경 · 농업 · 자연 및 소비자 보호부(MUNLV) 부처장 회의를 통한 결의로 성 주류화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시작함.
- 각 부처들이 성주류화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 다양한 각 부처별 근무자들로 구성된 '성 주류화 작업팀'은 양성평등위원회와 관련 기관 담당 부서장의 지휘 아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해당 주제의 일련의 활동에 협력함.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의 성 주류화 관련 '아이펠(Eifel) 국립 공원'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성 주류화의 자연보호 분야로의 도입'
- 프로젝트 기간 : 2004. 4-2005. 5
- 프로젝트 목표 : 성 주류화 관점을 자연보호 홍보, 교육 및 연구에 도입 적용, 또한 그에 관련된 인력을 성 주류화 전략에 맞게 교육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성 주류화가 자연보호 및 산림관리 전문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어 이행되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젝트 대상 : 산림청 공무원, 국립공원에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및 국립공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 관련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등

- 프로젝트 구성 : 성 주류화 관점에서 아이펠(Eifel) 국립공원 방문객에 대한 대외 서비스 구성내용 검토 (예 : 소년, 소년 교육서비스 실시 시 성역할 고정관념 내용은 배제됨, 소년 대상의 동화의 날 행사 실시, 소년 대상의 야생체험)

- 결과 및 전망 : 다른 산림청과 자연 보호 분야 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성 주류화 관점의 체크리스트 및 도구 개발, 이에 독일 최초로 젠더적 관점에서의 국립공원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본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젠더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일에 대해 사고함으로써 앞으로 국립공원에서의 업무가 총체적으로 개선됨이 전망됨.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자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업 -여학생과 여성을 위한 지침' 보고서

Ministerium für Klimaschutz, Umwelt,
Landschaft, Natur- und Verbraucherschutz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Berufe in Umwelt-, Natur- und Verbraucherschutz

Ein Wegweiser
für Mädchen und Frauen

Wissenswertes zur Berufswahl

<그림 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MUNLV) 프로젝트 보고서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장관(Johannes Remmel)은 미래사회에 녹색직업과 기술공학계 직업은 다른 직업과 융합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 기후·환경, 농업, 자연,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직업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여학생과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2007년 여성고용정책과 녹색성장분야를 연계하여 여성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직업소개 책자를 발간함.

-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24가지 녹색직업

· 환경과 자연분야, 산림경영 관련분야, 농촌과 정원관리분야, 식물과 동물 관련분야, 소비자 보호분야 등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여성과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녹색관련 직업 총 24가지 소개하고 있음.

- 주 관청에서 관할하는 4가지 녹색직업훈련과정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관청에서는 환경청 고위 환경기술직 수습근무, 고위 농촌관리 행정직 수습근무, 고위 농업경제직 수습근무, 수의사청 수의사직을 위한 수습 근무 등의 훈련과정이 있음.

(예) 고위 농촌관리 행정직 수습근무 : 총 2년제의 행정 및 자문활동을 위한 농업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 이 교육은 대학 전공 중에 습득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심화하고, 농업행정 고위직을 위한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고위직으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농업, 원예, 영양 및 가정경제학 혹은 그에 준하는 내용의 전공을 종합대학을 비롯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석사학위 또한 해당 전공과 관련한 분야에서 최소 1년 전문 실습 교육을 받은 후 직업 교육법에 따라 실습 시험 혹은 졸업시험에 합격해야만 함.

- 현장체험 정보

· 직업선택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 정보(girl's day, 대학학과정보제공의 날, 맛보기 대학수업, 실습, 녹색직업 체험을 위한 자발적 생태안식년)를 제공하고 있음.

2. 뒤셀도르프 대학 양성평등위원회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Büro der Gleichstellungsbeauftragten) 방문 내용



<그림 4> 뒤셀도르프대학 내 셀마마이어 멘토링 담당자 인터뷰

○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학계의 여성 엘리트 영입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추진을 통해 2006년부터 셀마 마이어(Selma Meyer) 멘토링 프로그램과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VäterZeit 프로젝트, 여성교수의 경력단절을 예방을 위한 학자 복귀 지원 Comeback 프로그램 실시함.

- 셀마 마이어(Selma Meyer) 멘토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목적 : 전문분야 여성 후학들의 커리어 양성을 적극 지원함.
- 프로그램 구성 : 박사과정 중, 박사학위 수여자, 대학교수 등 3단계로 나누어 전문직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커리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함.
- 프로그램 결과 : 2011년 SelmaMeyer WISS 프로젝트 4기 종료, 100명의 여성 학자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네트워크를 구축, 프로그램 결과는 전담제의

멘토링, 세미나 개최와 네트워크 구축, 멘토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함.

- VästerZeit 프로젝트

- 프로그램 목적 : 유럽연합기금과 주 정부의 후원을 받고 가족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남성들이 가족, 직업 혹은 학문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프로그램 구성 : '예비아빠', '출산 후 아빠 되기', '유치원 입학시키기' 등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서의 다양한 아버지 역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내용(자녀의 교육과 양육, 가정 내 역할 분담, 갈등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됨.

- 여성학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Comeback'

- 프로그램 목적 :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의 인사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구성 : 여성학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장기간 휴직 이후 대학복귀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 등의 재기 지원 장학 프로그램

3.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센터

(Kompetenzzentrum Technik-Diversity-Chancengleichheit) 방문 내용



<http://www.kompetenzz.de/Service/Suedkorea-interessiert-an-Bielefelder-Projekten>

<그림 5> 센터 홈페이지 內 기관 방문 및 인터뷰 관련 자료 게시

○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연구 우수 센터는 빌레펠트 전문대학의 부속 연구소로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 실행 등을 통하여 모든 직업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기회균등의 실현을 지지함.

- 1999년 '기술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는 여성들' 로 본(Bonn)에서 시작, 2000년 이 협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 기술 사회 속에서의 여성 우수센터' 설립, 2005년 이후 협회의 활동은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우수센터' 로 통합 집중됨.

- 현재 40개 이상의 각종 기술 협회 단체, 50개 이상의 프로젝트, 600여개 이상의 지역적이거나 초지역적인 프로젝트 활동으로 연계되어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함.

○ 센터의 수행과업은 3 분야, 디지털 통합, 평생교육과 직업, 자연과학 기술 분야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실행됨.

- 디지털 통합 : 국민의 미디어 능력 강화와 인터넷 참여 증대를 중점으로 실질적인 구상과 대책을 실행
- 평생교육과 직업 : 다양한 협회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젠더 관점의 직업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와 정책들을 고안
- 자연과학 기술분야 연구와 교육 : 여성들이 기피하는 이공계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 센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 목표 지향적인 프로젝트와 캠페인 개발
-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 운영
- 연구 및 평가
- 상담 및 벤치마킹
- 다양한 훈련 개발
- 네트워크 형성

○ 국가적 차원의 연합 프로젝트 : Komm-Mach-MINT²⁾

- 독일 연방정부 '교육을 통한 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연구부 지원을 받아 기술-다양성-기회균등 우수 센터에서 실행함.
-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공계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동기화 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2) 주요 이공계 과목.(Mathematik :수학, Informatik:컴퓨터 과학, Naturwissenschaften und Technik: 자연과학과 기술)

- 이과에 관심 있어 하는 여학생들 후원
 - 이공계 분야 전공 여대생들의 비중 증가
(최소한 유럽 연합의 평균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 최소 약 5%의 증가가 요구됨)
 - 주요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여성 인력 증대
 - 여성리더 진출 확장(대학 기관 및 대학 외의 연구기관, 각 기업체 등의 여성 리더 인사 비율 약 1%씩 증가시키는 것)
- 프로젝트 활동 과정은 2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 대학 진학 전 학교-직업 훈련 및 대학 전공: 여학생들이 이공계 분야의 학문으로 지원하도록 동기화
 - 대학전공-커리어로의 진출: 관련 전공자들, 교육 이수자들을 이공계 분야의 기업체 혹은 연구기관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네트워크 구축, 관련 프로젝트 연계, 홍보 등을 통해서 수행
- ▶ 네트워크: 새로운 협력 파트너 물색, 제휴 협정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참여 옵션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진행 과정 보고
 - ▶ 프로젝트: 협력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 발의, 기존 이공계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및 활동과의 병합 및 연계
 - ▶ 홍 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전시회를 비롯한 현지 행사, 대중 매체 이용, 정보 및 광고 전단 배포

· 프로그램 평가

여성은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음.

환경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이 토대가 되는 것은 이공계 교육임. 따라서

이공계로서의 여성유입을 동기화하는 것이 목적임.

2009년 대비하여 2010년 엔지니어링 대학 전공 신입생들이 약 11% 증가, 물리와 천문학 전공을 선택한 여대생이 약 24% 증가, 기계 공학 전공하는 여대생은 16.9%, 환경 공학 전공은 36.4%, 더욱이 생물학 전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음.

자연과학분야 전공 선택의 여대생의 증가는 여성들이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

최근 정·재계 및 대중매체에서 젊은 여성들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 여성 전공자들이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제활동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10년간 자연과학계 전공의 신입 여대생 수는 약 40% 증가, 신입 여자 공대생의 수는 약 89% 증가함.

○ Komm-Mach-MINT 와의 협력 프로젝트

- MINT Role Models-VDI³⁾ 이공계 롤 모델 소개

이공계 진출 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VDI 독일 엔지니어 연합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참여하여 긍정적인 사례 및 관련 모델 소개

- Taste MINT 이공계 학과 공부 맛보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이공계 학과 공부가 본인의 적성 및 잠재력 테스트를 해 봄.

- Cyber Mentor 사이버 멘토

이공계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멘토들이 여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E-mail을 통하여 조언해 줌.

3) 독일 엔지니어 협회 (VDI: Verein Deutscher Ingenieur)는 독일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엔지니어 협회로 5,500여건의 행사를 통해 학술과 지식의 교류를 진흥한다. 이 협회의 엔지니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기술 분야에서의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국제적인 단체들과 교류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힘쓴다.

4. OWL⁴⁾ 에너지 임펄스(Energieimpulse OWL) 방문 내용



<그림 6> 에너지 임펄스 프로젝트 담당자와 기관 관계자 인터뷰

○ OWL 에너지 임펄스 협회의 목표는 OWL 지역의 미래 에너지 사용 강화, 기업·기관·학교 등으로 연계된 프로젝트 네트워크 구성, 에너지 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고취 등으로 지역의 독일 엔지니어 협회(VDI)를 비롯하여 대학, 기관, 학교, 기업과 학술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매년 40개 이상의 전문가 후진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이행되고 있음.

- ‘도시공사 에너지 캠프’, ‘바비 자동차 태양 컵(Bobby car solar cup)’ 및 다양한 에너지 산업 견학은 젊은 층의 에너지 기술에 대한 흥미 유발과 OWL지역에서의 직업 선택 능력을 향상시킴.

- 연방 정부 환경부의 위임으로, 좀 더 많은 여학생들의 에너지 기술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에너지-재생에너지를 위한 여학생’이라는 프로젝트 고안함.

○ 뚜렷하고 목표 지향적인 언론 보도 및 홍보 작업으로 매년 100건 이상 본 협회 관련 기사들이 OWL지역 정기 간행물, 연속 출판물과 부록 및

4) OWL은 Ostwestfalen-Lippe의 약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명

TV와 라디오 보도를 통해 발표되어짐.

- OWL에너지 임펄스는 미래 에너지의 대변인으로 모든 주요 OWL 지역의 협의회와 전문 학회에서 인정, 본 협회의 활동에 지역 발전에서의 미래 에너지가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음.

5. 빌레펠트 여학생 협회

(Der Mädchentreff Bielefeld e.V.) 방문 내용

- 빌레펠트 여학생 협회는 실업 소녀 지원을 위한 협회로, 독일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청소년 무료 복지를 추진하는 단체임. 본 협회는 공동 복지 협회인, 빌레펠트 청소년 협의회(등록된 협회)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소녀노동 지원 지역 협력 단체에 소속, 1985년 이래로 여학생들의 여가, 문화 그리고 자기계발 교육을 위한 빌레펠트 여학생 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빌레펠트 여학생 모임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열린 최초의 여학생 모임임.
- Girl's Day(여학생 모임)는 2001년부터 시행, 매년 약 1 백 만명 이상의 여학생이 참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최대 규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매년 4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열림.
- Girl's Day(여학생 모임) 배경 및 목적
여성들의 진출이 낮은 기술, IT, 자연과학과 관련한 분야의 여성 참여도 향상, 관련 분야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 확대,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 궁극적으로 기회 균등과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된 직업 분야로의 진출이 목표.
- Girl's Day(여학생 모임) 참여자

- 기업체 및 각 기관의 조직 담당자 : 여러 관련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행사에 참여할 구성원들 모집, 프로그램 등록
- 여학생 : 홈페이지(www.girls-day.de)를 통해 제공되는 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 전화, 단체를 통해 등록
- 학교와 교사: Girl's Day와 Boy's Day에 대한 준비작업과 후반작업 수행.
- 부모 및 보호자: Girl's Day 행사에 대한 정보 검색, 당일 학교 수업 면제 신청

○ Girl's Day(여학생 모임) 지원자

- 지역 협회: 각 지역별로 활동연맹을 조직, 기업체, 산업체 및 학교 등에 알리며 홍보 지원함.
- 독일 연방국 각 주정부의 업무 담당자들: 각 주정부의 업무 담당자들은 각 지역 협회와 면밀히 협동하며 조문 및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독일연방 협력센터 (Kompetenzzentrum)
 - 기관·단체·학교 등의 네트워크 구축, 홍보, 조언
 - 프로젝트 홈페이지(www.girls-day.de)의 구성 및 관리
 -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 여학생들과 직업 진로에 관련한 주제
 - Girl's Day 관련 행사 전단의 배포
 - 행사준비와 관련한 행정적인 일
 - 각 관련 협회에 인터넷 톨과 행사장 중개 서비스 제공

○ Girl's Day(여학생 모임) 진행방식

- 기업 및 공공 기관들은 여학생들이 직업 선택 시 잘 고려하지 않는 분야 기술, IT, 자연과학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사무실, 연구소 및 공장을 개방
- 산업체는 여학생들에게 실제 작업장과 작업 과정을 견학시키며, 맛보기 작업수행 및 다양한 실험에 참여할 수 지원
- 기술, IT, 자연과학 분야 롤모델이 될 만한 리더인 여성과의 만남 주선

- 진로 및 커리어 계획에 대한 워크숍을 실행

○ Girl's Day(여학생 모임)의 결과

- 젊은 여성들의 직업 스펙트럼이 넓어짐.
- Girl's Day 행사를 통해 10%의 참여 기업들이 젊은 여성들을 기술직 분야에 고용함.
-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기업 내 양성평등 의식 조성에 현저히 기여함.
- 90%이상의 참여자들이 Girl's Day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그 중 37%이상의 여학생들이 참여한 기업체 및 기관에서 후에 실습 과정이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함.
- 독일의 'Girl's Day'는 최근 다른 10여 개국의 유럽 국가에서도 벤치마킹 되어 개최되고 있음.

○ 2012년 4월 26일 개최된 제 7차 Girl's Day(여학생 모임) 진행과정과 결과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의 Girl's Day 에는 총 33명의 여학생들 (만 12세~16세)이 참여해 기후 및 자연환경 보호와 소비자 보호분야, 그리고 농업과 정보기술 분야의 직업군에 대해서 견학,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안내 및 정보 제공과 토론의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시각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냄.

- Girl's Day 행사의 예 : 에너지/환경분야

- 2012년 빌레펠트 전문대학(FH Bielefeld)에서 40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 ▶ 일상생활에서의 태양에너지 사용방법
- ▶ 미래 에너지로의 태양광
- ▶ 식물 색소에서 얻는 태양 전기: 어떻게 태양빛과 과일차에서

태양전기가 나오는가?

- 프라우엔 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 태양 에너지 시스템
 - 실생활에서의 태양에너지 연구

- ▶ 태양에너지 연구직 견학
- ▶ 태양에너지로 얻는 전기로 운영되는 건물을 둘러보기
- ▶ 소규모 그룹으로 다양한 실습체험

- 에어프루트 전문대학 (FH Erfurt): 도심 속 물고기
 - 실제적 자연환경 보호

도심의 게라 강(Fluss Gera)에 어류가 이동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이 설치, 이는 어떻게 설치되었는가? 이때 고려되어야 했던 요소들과 인공적으로 설치된 어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짐.

- 알제이-봄스 지역(Kreis Alzey-Worms): 쓰레기는 어디로?

-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 ▶ 바이오 폐기물 차량에 대한 견학
- ▶ 퇴비주기 체험

- Girl's Day 행사의 예 : 이동 전시회-Vision 2027 소개



<그림 7> Girl's Day 비전 2027 분야별 콘테스트

- 'Vision 2027 : 너의 미래를 발명해봐'는 여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이 고안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 발명품들을 소개
- 환경, 에너지, 교통수단 및 건강과 영양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은 약 200여점의 기술적 발명품을 제출
- 여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예,
 - ▶ 일상 생활 관련: 완전 자동화된 책장
 - ▶ 기술 관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전해 가는 똑똑한 자동차
 - ▶ 환경 관련: 종자 보관을 위한 멀티 기능의 캡슐/ 자동차를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충전소/ 유채꽃씨를 통하여 얻는 수소물질 연구 등

- 2010년 “Girl's Day - 소녀들의 미래의 날”에는 12만2천 여 명이 넘는 5학년 이상의 여학생들이 참가하여 공학기술, IT, 자연과학과 수공업 을 접하고 경험해 봄. Girl's Day 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이후 이공계관 련 직업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Girl's Day의 시행이래로는 이공계 전공의 신입 여대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Ⅲ. 출장 결과 활용

1. 여성의 녹색일자리 연계와 녹색산업 시장의 유입을 위한 기관·단체·학교 등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

○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환경단체 및 협회, 학교 등에서는 여성과 여학생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해 긴밀하고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음.

- 모든 직업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여성을 환경분야로 적극적인 유입하고자 홍보, 인사제도 등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각각의 단체 및 협회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을 통해 긴밀하고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여학생 및 여성의 녹색일자리 연계를 지원함.

2. 여성의 녹색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는 모든 직원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부 직원의 환경기술직 훈련과정, 여학생 대상의 환경관련전공 체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젝트 수행함으로써 여학생과 여성의 녹색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그들의 동기를 구체화 시키고자함.

3. 국가차원에서의 여성고용정책과 녹색일자리 연계를 위한 여론형성 및 이슈 발굴을 위한 노력

○ 독일연방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과학 환경분야의 여성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Komm-Mach-MINT) 수행, 국민들의 참여를 동기화시킴으로써 여성의 녹색일자리 연계를 위한 여론형성의 근거

가 됨.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에서는 여성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직업소개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직업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녹색일자리에 대한 여학생과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 독려 등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여성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자 함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성 주류화 정책

I. 성 주류화 정책 과정

-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여성 회의에서 처음으로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라는 용어가 쓰임.
-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 회의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담론의 전개 및 발전이 이루어짐.
-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개정을 통해 성 주류화는 유럽 연합 헌법 상으로도 인정받고, 정치적인 면으로도 무게가 실림. 유럽 연합은 가입국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 양성 평등을 정치적 핵심 문제로 삼을 것을 의무화함. 성 주류화 적용이 유럽 연합 구조 기금을 얻는 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지정됨.
- 2000년 성 주류화는 독일 연방 정부의 각 부처의 공동직무규정 (GGO:Gemeinsamen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으로 명기되어, 모든 독일 연방 정부 부처는 성 주류화 전략을 모든 소관 사항에 적용하도록 의무화 됨.
- 2002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의회의 결안으로 성 주류화의 도입이 전반적 정치 원칙으로 지정됨.
- 2003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광범위한 행정근대화 과정에 성 주류화의 원칙이 통합 적용됨.
- 2005년 성 주류화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직무 규정의 공식적 내용으로 지정됨.

II.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기후 · 환경 · 농업 · 자연 및 소비자

보호부(MUNLV)에서의 성 주류화 정책 관련 프로젝트

- 2003년 9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기후 · 환경 · 농업 · 자연 및 소비자 보호부 (MUNLV) 부처장 회의를 통한 결의로 성 주류화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모든 근무자들은 각 작업 분야에 있어서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시작함. 각 부처들 마다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성 주류화 경쟁력을 시험해 봄. 다양한 각 부처별 근무자들로 구성된 '성 주류화 팀'은 양성평등위원회와 관련 기관 담당부서장의 지휘 아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해당 주제의 일련의 활동에 협력함.

- 파일럿 프로젝트 : '자연보호 분야로의 성 주류화 도입'

- 프로젝트 기간 : 2004.4-2005.5

- 프로젝트 목표 : 성 주류화 전략을 자연보호와 관련한 홍보, 교육 및 사회과학적 연구에 도입 및 적용하고, 그에 관련한 인력을 그 전략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

- 주력 프로젝트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 인트라넷 (Intranet: 내부전상망)의 출현'

- 프로젝트 기간 : 2003.4-2005.6

- 프로젝트 목표 : 최신 전자 중앙 정보 플랫폼(인트라넷)의 조성을 통한 최적화된 정보 접근성의 조성. 최신 기술이 적용된 내부 중앙 정보망(인트라넷)의 재편성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이 개선되어야 함. 이때 인트라넷의 형태와 내용이 가능한 한 모든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해야 하므로, 새로운 내부 중앙정보망의 남녀 양성 평등의 추구가 강조됨.

- 주력 프로젝트 : '인사 선정 절차 상의 체계'

- 프로젝트 도입: 2004년부터
 - 프로젝트 목표: 인사 선정 절차 상의 체계를 양성 평등적으로 구성하기. 채용 정보 알림으로부터 인사 고용 결정까지 일관적으로 남녀 성별의 특성적인 요소로 인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고 지원자들의 다양성에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함.
- 주력 프로젝트 : '활동 프로그램: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환경과 건강 (APUG NRW: Aktionsprogramm Umwelt und Gesundheit NRW)
- 프로젝트 도입: 2000년부터
 - 프로젝트 목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환경과 건강 프로그램 활동(APUG NRW)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경계를 초월한 합동작업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시행을 독려함. 이에 있어서 남녀 양성평등의 젠더적인 요소의 고려를 목적으로 함.
- 주력 프로젝트 : '색소와 페인트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 프로젝트 기간: 2004.1-2005.12
 - 프로젝트 목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 색소와 페인트를 다룰 때에 출현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의 개선. 동일한 요인으로 유발되는 문제들도 다양한 삶의 형태 및 조건으로 인해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문제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 이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 및 페인트의 영향력에 대해 알림. 해당 관청 부서와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교환의 개선이 필요함.

- 프로젝트 : '경영체가 지원하는 보육 (B.u.K.: Betrieblich unterstuetzte Kinderbetreuung)'
- 프로젝트 도입: 2004.10부터
- 프로젝트 목표: 가정과 일의 조화와 양립에 대한 개선점 찾기. 시간제 근무, 교대 근무, 재택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통한 근무시간대의 유연화로 산업 경영체가 지원하는 탁아시설 이외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함. 이 프로그램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에의 지원과 직업 활동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더 나아가 일자리 만족도와 작업 생산력의 향상을 목표로 함.